

# 전주문화재단, 전주×제주 교류전

‘흠어지고 모이는 빛과 이야기’ 8월 15일까지 개최... 8월 8일부터 제주서 교차 전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이 공동 주최하는 ‘2024 전주×제주 교류전’ <흠어지고 모이는 빛과 이야기>가 8월 15일까지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르면 양 재단은 지난 2021년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공동주최로 교류 전시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흠어지고 모이는 빛과 이야기>는 제주의 오늘을 살아가는 6명 작가들의 삶의 풍경과 경험을 반영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과 이야기를 모으고 축적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제주 예술공간 이아 입주작가인 이선희, 고은혜, 김승환, 박길주, 이계나, 전기숙 등이 참여해 사진, 영상, 회화,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앞서 두 도시 작가들이 만나 전주 문화예술 공간들을 탐방하고, 서로의 예술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8월 8일부터는 제주 예술공간 이아에서 전주 작가들의 전시 <시간의 중첩, 감각의 변주>가 교차해 열린다.

김수열 이사장은 “제주의 오늘을 자기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가들의 예술을 통해 전



이선희 작가 전시 전경

주 시민들이 제주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제주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각자의 독창적인 시각언어로 재해석한 전시에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주길 바란다”며 “8월 개최되는 제주 예술공간 이아에서의 전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시는 팔복예술공장 A동 2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063-211-9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마에스트로 B·H·C’ 장수 공연

18일 장수한누리전당서 진행...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일환 추진

장수군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에스트로 B·H·C’ 공연이 오는 7월 18일 오후 7시에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하면 된다.

이번 공연은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고, 장수한누리전당 상주단체인 (재)예술 담은 나라 주관으로 열리는 4회 메인 공연 중 두 번째 공연이다.

이대정광 지휘자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바흐 / 토카타와 푸가, 베토벤 / 교향곡 5번 운명, 브람스 / 헝가리안 무곡, 헨델 / 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최영섭 작곡의 그리운 금강산, 압해도 등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편곡으로 공연을 구성하였으며, 시대를 초월한 대가들의 예술철학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화려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군은 이번 공연 이후에도 9월 25일 ‘리허



설 중... 출입금지, 10월 30일 ‘From 논개’ 상주단체 메인 공연을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추진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수요처를 발굴해 9월 10일 ‘장계노인복지관’, 10월 25일 ‘장수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앞으로도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전통문화 분야 진로 탐색·성장 지원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2024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이하 꿈길)’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꿈길 인증제는 교육부에서 전국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기부(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매년 새로운 인증기관을 발굴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당에 따르면 많은 행사와 체험,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전당은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인 한지와 한복, 한식, 전통놀이, 공예 등을 주제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전통문화 전문가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꿈길 인증제 선정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전통문화가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전국의 학생들이 전통문화 분야 관련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증기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정읍시, 뮤지컬 ‘NEW 달을 품은 슈퍼맨’ 26일 개최

정읍시가 오는 26일 오후 7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뮤지컬 ‘NEW 달을 품은 슈퍼맨’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사업으로, 올해 정읍시가 협력 공모에 선정돼 진행되는 것이다.

뮤지컬 ‘NEW 달을 품은 슈퍼맨’은 2017 한국뮤지컬어워즈 신인 연출상을 받은 추정화 연출과 2008 뮤지컬어워즈 작곡상을 받은 허수현

음악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희망을 갖고 꿈을 품은 청춘들이 세 모자(母子)가 사는 달동네 자취방에서 상금이 걸린 밴드 대회에 참가하며 펼쳐지는 내용을 담은 청춘 힐링 뮤지컬이다.

관람료는 1만원이며, 정읍시민·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은 50% 할인된다. 관람권은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티켓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장수군, 찾아가는 문화공연 ‘백설공주와 겁 많은 호랑이’ 인형극 성료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백설공주와 겁 많은 호랑이’ 인형극이 지난 12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주최하고, 극단 푸른 숲(대표 김정표)과 장수군 주관으로 열리는 인형극으로 관내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주고자 추진됐다.

공연은 겁 많은 호랑이가 용기를 내어 위험에 처한 백설공주를 구해주는 내용으로 아이



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용기를 일깨울 수 있도록 각색됐다.

인형극은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이었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